

2020 시즌 잡으러 간다... KIA 스프링캠프 대장정

30일 미국 플로리다 출국 3월 7일까지... 74명 참가 역대급 규모
맷 윌리엄스 감독 시즌 밑그림 구상... 선수들에 무한 경쟁의 무대
ML식 논스톱 훈련... 내달 20일부터 독립리그·대학팀과 연습경기

KIA 타이거즈가 대규모 캠프를 꾸려 2020 시즌을 준비한다.

KIA는 오는 30일 미국 플로리다주 출국해 2월 1일부터 3월 7일(현지시간 6일)까지 포트마이 어스(테리 스포츠 컴플렉스)에서 스프링캠프를 치른다.

이번 캠프는 선수만 54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선수단'이 특징이다.

플로리다로 건너가는 인원은 맷 윌리엄스 감독

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 20명과 선수 54명 등 74명에 이른다.

새로 지휘봉을 잡은 윌리엄스 감독이 전체적인 틀에서 선수들을 파악하고 2020 시즌 윤곽을 그리기 위한 방안이다.

선수들에게는 '무한 경쟁'의 무대다.

윌리엄스 감독이 선수들에게 '바로 될 수 있는 100% 몸상태'를 강조한 만큼 캠프 초반에 조기 탈락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3일 훈련, 1일 휴식' 체제로 체력 및 기술, 전술 훈련을 소화하는 KIA는 2월 20일부터는 미국 독립리그 및 대학 팀들과 15차례 연습 경기를 치른다. 연습경기가 시작되면 실전 체제에 맞춰 선수단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메이저리그식 논스톱 훈련'도 이번 캠프의 특징이다.

KIA는 2월 20일 A·B조로 하루에 두 경기를 소화한 뒤 이후 3월 4일까지 휴식일 없이 15차례 연습 경기 일정을 이어간다.

휴식일이 거의 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메이저리그 스프링캠프 스타일이다.

훈련 시간도 메이저리그 스타일로 줄어들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선수들의 자율 훈련 중요성은 커지게 됐다.

한편 이번 캠프 명단에 '최고참' 김주찬과 함께 우안 김윤동, 좌완 임기준, 외야수 김호령 등이 부상으로 빠졌다.

김주찬은 지난 12월 왼쪽 허벅지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았고 지난해 어깨 부상을 당한 김윤동도 아직 재활 단계이다. 임기준과 김호령은 몸 상태에 따라 캠프 중반 합류가 가능할 전망이다. 임기준은 왼쪽 어깨가 좋지 않고, 김호령은 배팅 훈련 도중 왼손 중지 부상을 당해 관리 차원에서 명단에서 제외됐다.

스프링캠프 명단에서 빠진 김민호 코치는 퓨처 스타리그에서 유망주 육성에 집중할 예정이다.

◇2020 플로리다 스프링캠프 명단

▲코칭스태프(20명) : 윌리엄스 감독, 워터마이어 수석코치, 서재용, 앤서니, 송지만, 최희섭,

김민우, 이현근, 김종국, 진갑용, 광정철, 서동욱, 배요한, 정상욱, 유재민, 윤인득, 방석호, 오준형, 조세범, 윤태종 ▲투수(27명) : 김기훈, 고영창, 김승범, 김현수, 김현준, 문경찬, 박동민, 박서준, 박정수, 박준표, 박진태, 백미카엘, 변시원, 서덕원, 양승철, 양현중, 이민우, 이준영, 임기영, 전상현, 차명진, 하준영, 홍건희, 홍상삼, 가능, 브룩스, 정해영(신인) ▲포수(5명) : 한승택, 김민식, 백용환, 이정훈, 한준수 ▲내야수(12명) : 고장혁, 김규성, 김선빈, 나주환, 박진두, 박찬호, 유민상, 최정용, 황은호, 황대인, 박민(신인), 홍중표(신인) ▲외야수(10명) 최형우, 나지안, 터커, 문선재, 박준태, 오선우, 이우성, 이진영, 이창진, 최원준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모든 걸 꿰뚫어 보는 '학범슨'

<김학범+퍼거슨>

김학범호, 올림픽 예선 조별리그 조1위로 8강 진출... 3연승 유력
분석 통한 맞춤전술... 이란·우즈베크전에 선발 대거 교체로 상대 허 찢러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의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조별리그 3전 전승의 원동력은 '지략가' 김학범(60) 감독이 보여준 '분석 축구의 힘'이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5일 태국 랑싯의 탐마삿 스타디움에서 열린 '다펜딩 챔피언' 우즈베키스탄과 대회 조별리그 C조 3차전에서 오세훈(상주)의 멀티골을 앞세워 2-1로 이겼다.

이로써 김학범호는 조별리그에서 전승을 거두고 당당히 조 1위로 8강에 올랐다. 16개 참가팀 가운데 조별리그를 3연승으로 마치고 8강에 진출한 팀은 한국이 유일하다. 16일 3차전을 치르는 D조에서도 2승을 거둔 팀은 없다.

한국의 조별리그 3연승은 상대에 대한 완벽한 분석 덕분에 가능했다.

뛰어난 지략가로 손꼽히며 알렉스 퍼거슨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의 이름을 따서 '학범슨'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라는 것을 김 감독 스스로 증명했다.

김 감독은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 앞서 조별리그 상대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맞춤 전술'을 짜고 태국으로 날아왔다.

완벽한 준비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비록 중국과 1차전에서 후반 추가시간 이동준(부산)의

극장골로 힘겹게 승리했지만 이어진 이란(2-1승), 우즈베키스탄(2-1 승)과 대결에서는 멀티골 승리로 마무리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1월 두바이캠프에서도 사실상 대표팀을 이원화해 골고루 기회를 주며 선수들의 기를 살렸다. 김 감독 스스로 "우리는 정해진 베스트 11이 없다"라고 공언할 정도였다.

맞춤 전술은 경기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김 감독은 이란과 2차전에서 중국과 1차전 선발 멤버 가운데 7명이나 바꾸는 파격적인 전술을 꺼내 들었다. 이란 감독도 깜짝 놀란 전술이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과 최종전에서도 이란전 선발 멤버에서 6명을 바꾸는 파격 전술을 이어갔다. 덕분에 선수들은 고온다습한 태국의 날씨에서도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전을 마치고 므스크론에서 취재진과 만난 윤종규(서울)는 "감독님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었다"고 강조했다.

윤종규는 "우즈베키스탄의 전술과 선수들의 포지션은 물론 그 선수들의 역할까지 감독님이 팀 미팅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나왔다.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다 알려주셔서 우리는 지시대로 한 거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학범 감독 역시 경기가 끝난 뒤 "조별리그 준비는 한국에서 다하고 왔다"라며 "상대에 따라 선수들의 장단점을 고려해 조합을 짜면 된다"라며 "우즈베키스탄 역시 예상한 그대로 나왔다"고 웃음을 지었다.

대회가 진행될수록 지략가 '학범슨'의 위력이 한국의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의 희망을 더욱 밝혀주고 있다.

김 감독은 우즈베키스탄전이 끝난 뒤 같은 경기장에서 이어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시리아의 조별리그 B조 최종전을 보기 위해 선수들을 숙소로 보내고 관중석으로 향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태국 랑싯 탐마삿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조별리그 최종전, 한국 대표팀이 선취골을 넣고 동료선수들과 환호하고 있다. 비디오 판독 결과 오세훈 선수가 골을 넣은 것으로 기록됐다. /연합뉴스

박세리, 한국인 첫 '밥 존스상'

미국골프협회, 업적 뛰어난 골퍼인에 수여... 여자선수는 8년만

여자골프의 '레전드' 박세리(43)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골프협회(USGA)가 주는 권위 있는 상인 '밥 존스상'을 받는다.

USGA는 16일(한국시간) 올해 '밥 존스상' 수상자로 박세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골프의 구성(球型)이라는 칭송을 받는 밥 존스의 이름을 따 1955년 제정된 '밥 존스상'은 골퍼에 대한 열정과 업적이 뛰어난 골퍼인에게 해마다 수여한다.

마스터스가 열리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을 세운 존스는 US오픈, 디오픈, US아마추어, 브리티시아마추어를 모두 석권해 사상 그랜드슬램을 달성했고 US오픈 4번, US아마추어 5번 우승 등 출중한 실력을 지니고 평생 아마추어 골퍼로 남았으며 미국 최고의 골퍼인으로 추앙받고 있다.

'밥 존스상' 수상자 대부분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전설급 인물이다.

진 사라센, 바이런 넬슨, 게리 플레이어, 아놀드 파머, 잭 니클라우스, 벤 호건, 톰 왓슨, 벤 크렌쇼도 받았으며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가수 빙 크로스비, 코미디언 밥 호프 등 골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인사들도 수상했다.

작년에는 흑인으로는 마스터스에 사상 최초로 출전했던 리 엘더가 받았다.

여자 프로골프 선수로는 2012년 안니카 소렌스탐 이후 8년 만이다. 앞서 베이브 자라리아스, 미키 라이트, 루이스 서그스, 낸시 로페스, 로레나 오초아 등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선



수들이 이상을 받았다.

한국인으로는 박세리가 첫 수상이다.

USGA는 박세리가 LPGA투어에서 US여자오픈 등 메이저대회 5승을 올리는 등 탁월한 업적을 이뤘을 뿐 아니라 한국 여자골프가 세계 최강으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쌓았고, 전세계 어린이들에게 골프 선수의 꿈을 키워줬다고 수상자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시상식은 오는 6월 미국 뉴욕주 윈드풋골프클럽에서 치러지는 US오픈 때 열린다.

/연합뉴스

광주 FC 베테랑 수비수 한희훈 영입

일본·국내 무대 활약... 지능형 수비·강인한 체력 장점

광주 FC가 수비라인 강화를 위해 베테랑 수비수 한희훈(29)을 영입했다.

광주는 16일 "일본 J리그와 K리그1, 대구 FC 등에서 활약한 수비수 한희훈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2013년 일본 J2리그 에히메FC에서 프로에 데뷔한 한희훈은 2015년 도치기SC를 거쳤다. J리그에서 3년간 65경기에 나와 3득점을 기록한 한희훈은 2016년 부천FC를 통해 K리그 도전을 시작했다.

한희훈은 K리그에서의 첫째 골키퍼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40경기 풀타임(3600분)을 소화하며 안정감 있는 수비와 강인한 체력을 선보였다.

이후 K리그1 승격 팀인 대구FC로 이적한 그는 K리그 통산 127경기(5골)에 출전하며 주전 수비수로 맹활약했다. 한희훈은 또 뛰어난 리더십으로 3년 연속 대구의 주장을 맡기도 했다.

안정감 있고 지능적인 수비 능력을 갖춘 한희훈은 중앙 수비수뿐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역할도 소화할 수 있다. 특히 일대일 몸싸움과 공중볼 장악능력이 뛰어나며, 그라운드에서 투지가 좋아 팀 분위기에 활력을 더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희훈은 "광주는 싸이름 좋고 튼튼한 팀이다. 파이널A를 목표로 하는 경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광주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돕겠다. 경쟁을 해야겠지만 팀 안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